

原電建設主管處 變更으로 借款 延期

Angra-2, 3호기의 건설 책임을 연방전력공사인 Eletrobras사에 넘기로 한 최근의 브라질 정부의 결정은 가뜰이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은행이 10월초로 예정되었던 5억 달러의 차관승인을 11월까지 연기한 것이다. 이 연기 조치는 상황변동에 따라 은행측이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얻기 위해서이다. 브라질정부 소식통은 Eletrobras사가 새로 인수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에 2억5천만 달러의 자금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세계은행 차관은 일본정부로부터 5억 달러, 유럽 민간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의 기금이 마련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두 원자료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총 투자액은 약 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PNPP-1호기 協商 再開

필리핀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사는 현재 보관 중인 22억 달러 상당의 PNPP-1호기에 대한 손해배상 협상을 금년 12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상원의 PNPP-1호기 특별심의위원회 의장인 Saguisag 상원의원이 밝혔다.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협상이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핀 정부가 실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현정부는 이 발전소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또한 前 정부에서 계약한 부채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사기와 증회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공급자인 WH사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를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의장인 Ordonez법무장관은 이 문제를 국제중재(그는 이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에 회부하기 보다는 WH사를 상대로 낸 의심스러운 소송절차의 배후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비용에는 15만 달러의 제소비용이 포함된다. 다른 정부소식통은 이 위원회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뉴욕에 본사를 둔 자문회사에서 최근 제출한 권고내용을 검토중이고 또한 NUS사에서 최근 실시한 이 발전소에 대한 기술감사 결과를 평가중이라고 전했다.

西 獨

KWU社, 소련으로 부터 PRA用役 受注

Siemens그룹의 KWU사는 한 소련형 PWR에 대한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PRA) 용역계약(1989년 2월 만료)을 수주했다고 소련과 서독 관계자들이 공동발표했다. 서독의 국영 원자로 안전공사인 GRS사도 참여하고 있는 이 계약은 원자력관계 엔지니어링과 안전성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논의해왔던 Siemens